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흰 보좌 심판!(1)

- 읽을 말씀 계 19:1-21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재림 때 일어날 두 추수가 14장에 등장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에 숨겨진 휴거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예수님의 재림

1) 통과설이면 지상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는 어디에 있나?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본문인데 휴거에 대한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6-9절의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31절에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29) 즉 대환난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는데(30), 그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31)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모으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온 세상에서 모으는 것이므로 휴거입니다. 그 뒤 40-41절에서는 휴거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일” (33)은 말세의 징조들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난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3)고 한 것은 지상재림입니다. 그 뒤 재림 직전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37-39)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지상재림 때 일어날 휴거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에서도 휴거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절의 “그때에”는 문맥에 의하면 24장 후반부에서 설명한 지상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지상재림이므로 대환난을 통과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휴거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휴거(10)이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6-9)도 휴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의 어린양 혼인잔치에서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신부)라고 불리는데 왜 열 처녀 비유에서는 신부의 친구들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열 처녀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를 통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신부의 친구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신부에 비유하지 않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곳에서의 잔치는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재림 때 있을 잔치 즉 어린양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 비유는 정확히 휴거를 보여준 것이며, 환난 전 휴거설이 아니라 통과설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왜 재림 직전에 휴거를 뜻하는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영접하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직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계시록의 순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양 혼인잔치는 휴거를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한편, 폴 파인버그는 “휴거 본문에서 부활의 시점과 재림 본문에서의 부활 시점이 명백히 모순된다.”며 의문을 제기 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4:13-18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시점은 재림하실 때입니다. ... 그러나 요한계시록 19-20 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원수를 멸절시킨다. 사단을 결박하신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부활한다.” 라고 합니다. 그의 지적대로 재림 때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20장에서 다룬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린양 혼인잔치와 재림, 그리고 부활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간순이 아닌 주제별로 나열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서신과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휴거될까요? 답은 열 처녀 비유에 나온 대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마 25:3-4). 그럼 어떻게 해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왜 기름이 필요한지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필요한 이유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마 25:8).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14-16).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름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의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되고, 잠언에서 지혜 또는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통해서 재증명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열 처녀 비유의 결론인 **“깨어 있으라”(마 25:13)** 라는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증명이 됩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롬 13:11-14, 고전 15:33-34, 살전 5:6-8, 계 16:15). 또한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8)** 도 기름준비가 이런 의미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름준비입니다. 예수님이 단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 7:21).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휴거의 자격을 논하실 때 열 처녀 비유뿐 아니라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고 하고 2장과 3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지킨다는 것, 바꾸어 말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①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열 처녀 비유).

②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해야 한다. 즉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달란트 비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영접한 것 안에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마 7:21, 눅 6:46)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롬 1:6, 14:7-9 고후 5:1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 24:45-51, 고전 9:23). 그러므로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며, 성도님들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하고, 실제로 즐거이 헌금을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③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베풀고 나눔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양과 염소의 비유).

어떤 분들은 ‘왜 구원을 얘기하면서 선행에 대해 말하나?’ 라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선행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궁극적인 구원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이 참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만 가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